

# 5차 교섭도 결렬... 기아차 임협 장기화 조짐

### 노조 일괄제시 사측 답변 없자 10분만에 철수... 오늘 쟁의조정 신청

기아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름휴가를 마친 노사는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지만 온도차가 커 협상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차 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5차 본교섭을 가졌다. 여름 휴가 전 9차례의 교섭기간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이날도 노조가 휴가 전 마련한 일괄제시(기본급·성과급 등에 대한 요구)안에 사측의 답변이 없자 협상은 10분 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의 교섭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측과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 중인데, 회사가 일괄제시 답변을 내

놓으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섭을 통해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아직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현대차도 동일한 시간에 쟁의신청에 들어간다.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간 노사가 조정기간을 갖게 되며 교섭은 중지된다. 아울러 기아차 지부는 13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지회는 앞서 5일 노조회보를 통해 5차 본교섭에서 사측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단결력을 보여주겠다고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으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주간 2

교대제 도입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임금협약 사항 외에도 정년 61세 연장과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 단체협약 사항

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달 24일 열린 노사 간 17차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또다시 무리한 투쟁관행을 되풀이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노사간 협상을 통한 진지한 논의가 자동차산업 위기극

복과 조합원들을 위한 길임을 노조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업체는 여름휴가 전 올해 임금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절전으로 전력난 극복하자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60명은 6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서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여름철 전력부족위기를 절전으로 극복하자'는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7월 수입차 판매 1만4900대

### 전년 동기비 39%나 늘어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월간 수입차 판매량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내수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도 모처럼 판매량을 늘렸지만 수입차는 이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시장을 키워나간 것이다.

한국수입자협회(KAIDA)는 6일 7월 한 달간 팔린 수입차가 1만 4953대(등록대수 기준)로 전년 동월보다 38.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6월과 견주면 16.9% 증가한 수치다. 이전까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5월의 1만3411대보다도 1500대 이상 늘었다.

수입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12.3%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판매량은 8만94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3007대)보다 22.5% 증가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는 폴크스바겐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신차인 폴트 7세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 중형 세단 파사트 등을 앞세워 판매량을 전월보다 62.7% 늘리며 순위를 3위에서 2위로 끌어올렸다. 폴크스바겐이 2위에 오른 것은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브랜드별 판매량은 부동의 1위 BMW가 3023대를 팔아 1위를 지킨 가운데 폴크스바겐(2696대), 메르세데스-벤츠(2567대), 아우디(1776대), 도요타(737대)가 2~5위에 올랐다.

윤대성 수입자협회회장은 "7월에는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와 적극적인 프로모션 및 물량 확보 등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부 우윳값 인상 적정성 조사 착수

정부가 유업체의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최근 주요 유업체의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가격 인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격 인하 유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들이 이달 8일과 9일을 기해 흰 우유 가격을 1ℓ 당 250원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은 원유가격연동제 첫 시행에 따른 인상분 106원과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상승분 144원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 채권단 갈등 대한조선 정상화 뼈적

### 마지막까지 부채 성실 상환 옛 대주그룹 계열사

###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큰 지역 대표기업 살려야

대한조선을 둘러싼 채권단의 갈등이 부상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대한조선의 정상화가 뼈적거리고 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부실채권 전문 자산운용사인 파인트리는 대한조선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채권단은 대한조선에 대해 13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정상화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신한은행 및 파인트리는 지난달 말 대한조선 채권에 대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매수청구는 대한조선에 1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에 출자전한 한 주식 500억원과 채권 400억원 등 900억원대 이상의 채권을 보유중이

다.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1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6개월 내 다른 채권단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 제값을 받을 수 없어 신한은행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향후 선박 인도에 따른 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쓰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조건부 동의'의사를 밝혔지만 산업은행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이따하면 신규 자금 지원은 1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대한조선은 지난 2004년 대주 건설 허재호 회장이 대주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조선을 설립해 호남 프로젝트를 출발했다. 조선업은 고용 창출, 협력업체 활성화로 인한 산업 파급효과 등에서 자동차 산업 다음가

는 업종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주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한조선마저 흔들렸고, 금융권의 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은 대주건설이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기업을 정리해 3800억원의 자금을 건설관련 협력업체 및 채권단에 갖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인들은 DJ 정권이 계속 유지됐다면 기간산업인 대한조선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이뤄져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 특히 대주건설은 최근 법정관리 등 법에 기대 채권을 정리했던 다른 건설업체와 도덕성에서도 비교되고 있다. 이와함께 건설업은 광주경제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과거 대주건설 등 파급효과가 큰 업체에 대한 지역민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지난 2년 5000가구 완판 우미건설 이달 나주혁신도시 1078가구 공급

올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45위를 기록한 우미건설이 올 하반기 안정적인 재무건전성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6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올해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결과에서 지난해 BBB보다 1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대한주택보증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에서도 모두 A-로 공시됐다.

우미건설이 높은 신용등급을 확보한 데는 성공적인 분양결과가 뒷받침됐다. 우미건설은 지난 2년에 걸쳐 ▲대전도안신도시(1691가구) ▲전북혁신도시(1142가구) ▲구미옥계(720가구) ▲청주금천(319가구) ▲원주무실2지구(653가구) 등 5000여 가구를 분양에 나서 모두 '완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총 3개 단지에 3182가구를 공급할 예



정이다. 특히 이달 광주·전남혁신도시 B11블록에 1078가구가 공급되는 우미건설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6~84㎡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지상 20층 16개동 총 1078가구의 대단지 규모다. 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해 있어 광주, 나주 등의 지역으로 이동이 쉽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11개 이진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공공기관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업무지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선보이는 단지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지역 中企 DK산업 제습기 '디에떼' 광주시 등 지원으로 TV홈쇼핑 방송

광주지역 중견업체인 디케이산업(대표 김보근)의 '디에떼' 제습기가 TV홈쇼핑 전파를 탄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6일 '일사천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지역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계획에 따라 디에떼(d-ete) 제습기가 7월 오후 3시40분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디케이산업은 20여년 동안 삼성전자에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의 주요부품을 공급해 온 지역 대표기업으로 그동안 쌓은 가전제품 분야의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완제품 제습기를 직접 개발했다. 디에떼 제습기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올해 제습기시장이 확대되면서 목표량량 3만대를 초과 판매하는 등 인기몰이중이다.

'일사천리' 사업은 각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알리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전남도청에서 첫 실시한 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됐으며 올해에는 광주시도 지원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디에떼' 제습기 외에도 휴대바비큐(준제바비큐 아푸드), 온돌마루(삼성의료기), 필립팩(아이러브브러), 모시송편(진미당식품), 패션의류(루바니), 목욕습 행주세트(뉴너니스코리아), 김치(광주김치감찰배기), 전기찜질기(명신메디칼) 등의 제품이 협의를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영태 본부장은 "그동안 질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력과 홍보력의 열세로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지역 우수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06.62 (-9.60)	557.36 (+0.76)	2.92% (0.00)	1115.50원 (+1.70)

#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 Gwangju & Jeollanam-do Youth Festival 2013

2013. 8. 31 (토) 오전 10시

###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중·고교생 댄스·밴드·풍물 등 각종 공연
- 대학 선택을 위한 입시홍보관 / 진로적성 상담관 운영
- 4대악 척결 UCC공모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 유학 / 화상영어 설명회
- 대학 인기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 광주FC 선수단 팬사인회 및 경품이벤트

주최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일보사

후원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 경연대회 모집안내

모집분야 | 밴드 경연, 댄스 경연, 풍물 경연  
4대악 척결 UCC공모전  
3:3 길거리농구대회

모집기간 | 2013년 8월 19일(월)까지

문의 | 062. 220. 0555 / 010. 5020. 5008

**교육부장관상 및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수여**